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를 향한 혐오 범죄에 대한 확대된 언어 접근성 정책과 가상 포럼 발표

행정명령으로 주 전체 언어 접근성 정책에 적용되는 언어 수를 6개에서 10개로 확장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주민 혐오 범죄의 증가를 다루는 [가상 포럼](#)이 2021년 3월 30일로 예정

모든 이를 환영하는 뉴욕주로 만들고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중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Cuomo 주지사의 헌신을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언어 접근성 정책을 크게 확대하여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사용 언어와 상관없이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 및 전국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사건 및 공격의 급증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가상 공개 포럼](#)을 발표했으며, 2021년 3월 30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와 전국의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Asian-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 지역사회에 대한 혐오 범죄의 불안한 증가는 무서운 일이며 두려움, 증오, 분열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의 다양성은 항상 가장 큰 힘이였으며, 이러한 사악하고 비겁한 공격이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로 인해 위협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지역사회와 계속 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증오와 차별을 비난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혐오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혐오 범죄의 희생자를 위한 자원을 늘리고 우리 주에서 차별을 몰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어 접근성 확장

2011년 처음 발표된 Cuomo 주지사의 새로운 언어 접근성 정책 확장은 뉴욕주와 국가 전체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와 편견 사건이 불안하게도 증가하는

시기에 시행되었습니다. 혐오 범죄 및 편견 관련 사건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지사의 행동은 뉴욕주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약 250만 명의 뉴욕 주민은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영어를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개인이 중요한 정부 혜택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기관은 주정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핵심적인 양식 및 기타 문서를 포함하여 중요한 문서를 영어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뉴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위 10개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또한 기관이 주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중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지사의 새로운 언어 접근 정책에 따라 중요 문서는 아랍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이디시어로 번역될 것이며, Cuomo 주지사가 2011년에 제정한 이전의 언어 접근성 정책에 포함되는 벵골어, 중국어, 아이티 크리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에 추가됩니다.

인권부 가상 포럼

이 포럼은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에서 주최하며 최근 몇 달 동안 아시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최근 한 보고서는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전국에서 약 4,000건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모아 이러한 공격의 영향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의 혐오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토론은 인권부 임시 커미셔너 Johnathan J. Smith가 주도할 것이며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Asian American Federation) 집행이사 Jo-Ann Yoo, 반명예훼손 연맹(Anti-Defamation League) 뉴욕/뉴저지 지부 지역 담당이사 Scott Richman, 시크교 연합(Sikh Coalition)의 정책 및 지지 수석 관리자 Sim J. Singh 등 주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인권부 임시 커미셔너 Johnathan J.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공격은 추악하고 비극적이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존엄성을 가지고 살 권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의 일원인 뉴욕주 경찰과 인권부 및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혐오를 동기 삼아 유발된 범죄 및 편견과 관련된 추세, 지역사회 취약성, 차별 관행 등을 파악하고 수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uomo 주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테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조상,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 종교, 종교 관습, 나이, 장애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경우 테러 행위에 대한 주정부 수준의 중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2019년에 Cuomo 주지사는 현지 법 집행 기관이 혐오 범죄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새로운 핫라인인 1-877-NO-HATE-NY을 개시하여 뉴욕 주민은 전화를 걸어 혐오 범죄 또는 잠재적 편견 관련 공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의 다른 문제들을 신고하려면, [여기](#)로 인권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88-392-3644로 전화하거나 81336으로 HATE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